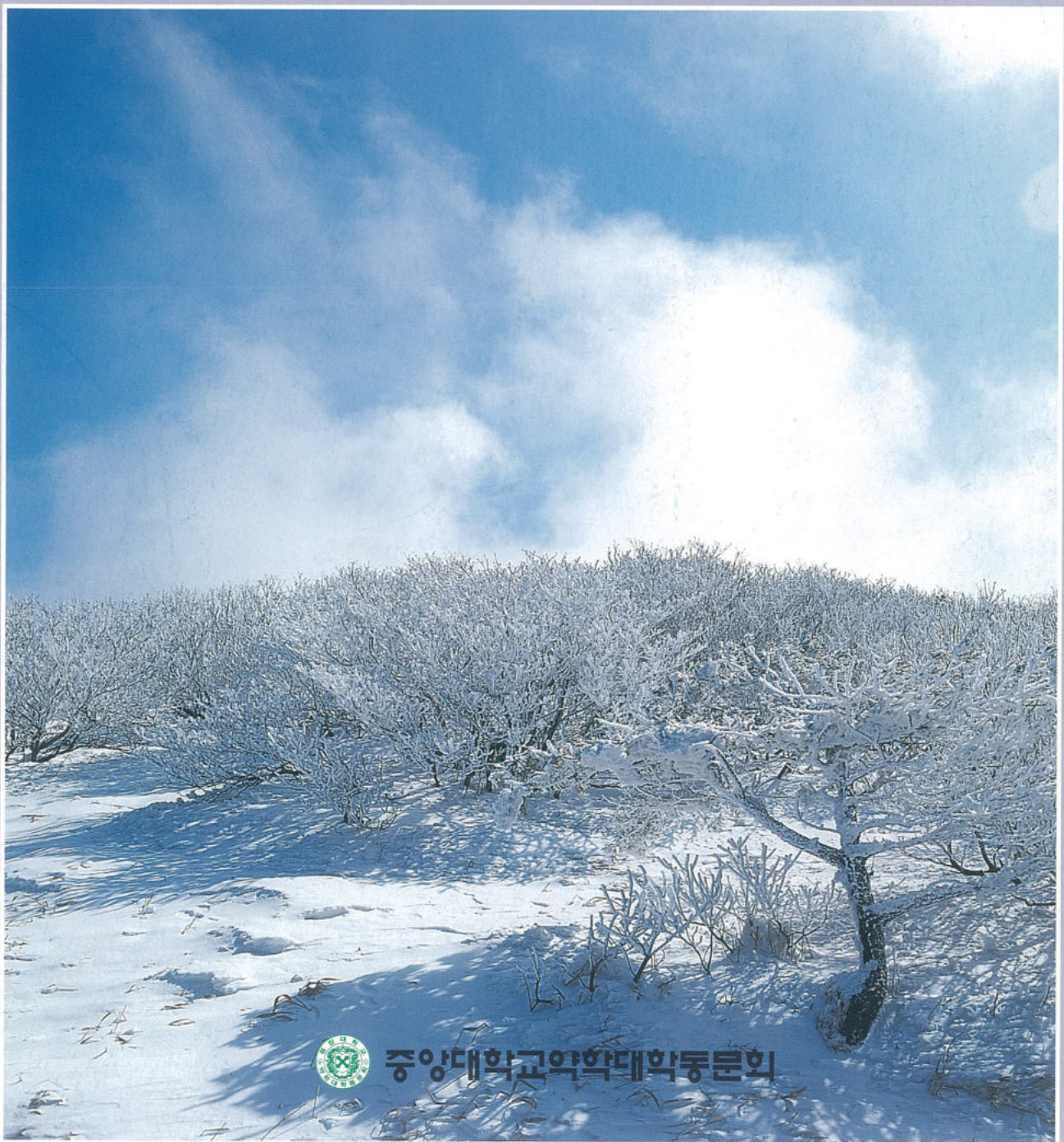


中央藥大 同門會報

겨울

2006년 제19호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CONTENTS

겨울
2006년 제19호

3. 시론
몽치면 살고 흐터지면 망한다.
인생의 중용은 무엇인가
4. 프로필
제15대 회장단, 제15대 이사 명단
8. 동문회소식
임원워크샵, 문화유산답사
제35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초도이사회/여동문회의/장학기금위원회/회장단회의
13. 동기별소식
23회/그리운 우리 벗들!
14. 동�회동정
19회 졸업 30주년을 기념하며
16. 지부별 소식
성동·광진지부
17. 특별기고
파키스탄 지진현장을 가다.
20. 문화산책
3회/도전
22. 별난동문이야기
19회/내인생의 블루오션은 산삼이다
24. 약국도움이야기
기능식품의 효과적인 판매를 위한提言
26. 학교소식 및 총동문회 소식
중앙인의 밤
27. 만평
단생산사(團生散死)
28. 회원동정
32. 동문기금
발전기금 조성 내역
동문회비 및 기금 납부자
36. 편집후기

뭉치면 살고 흐터지면 망한다

인생의 중용은 무엇인가



서 국 진
(13회, 부회장)

나쁜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구별하면서 한쪽에 치우치므로 패가 나뉘게 된다.

우리 동문들도 지난날은 모두 잊어버리고 권혁구 회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중앙인의 긍지를 되살려 나갑시다.

인생에서 중용을 이루려면 먼저 인생자체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 지배하는 자만이 투명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자기 인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용을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것처럼 인생은 어느 한쪽만은 아니다. 불행한 인생에는 좋은 일, 나쁜 일이 항상 같이 있으며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설령 나쁜 일이 생겨도 일시적으로 좌절하더라도 결코 완전히 패배하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 자기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의 생활에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용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나쁜 것이라 하여 외면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못마땅하다고 해서 선후배 지간에 등을 돌리지도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세상과 동문을 다 등지게 된다.

그뿐 아니다. 중용을 얻어야 만이 나쁜 것도 바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나쁜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 우리 동문들끼리 마음에 안든다고해서 선불리 다른 사람을 찾아서는 안되고 우리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일만을 선택하지는 말아야 한다. 일이라는 것은 열심히 하다보면 다 똑같은 것이다.

기업의 세계에서건 약사회, 동문회 사회에서건 자기 파벌을 조성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병폐인줄 알면서도 대개의 지도자는 자기 주위에 자기 비판 세력을 두기보다는 자기류 내지는 자기 동조자들을 두게 된다. 이것은 지도자의 중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쁜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구별하면서 한쪽에 치우치므로 패가 나뉘게 된다. 우리 동문들도 지난날은 모두 잊어버리고 권혁구 회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중앙인의 긍지를 되살려 나갑시다.

제 15대 회장단

회장



권혁구 (9회)

사무총장



김종렬 (14회)

사무부총장



김영식 (23회)

부회장



이근배 (9회)



박성학 (9회)



최인자 (9회)



황태선 (9회)



박호일 (10회)



유정사 (10회)



황공용 (11회)



김구 (12회)



심재웅 (12회)



이성우 (12회)



문재빈 (13회)



박동규 (13회)



서국진 (13회)



조길도 (14회)



임영식 (15회)



조찬휘 (15회)



허사길 (16회)



신상직 (17회)



장재인 (17회)



선우영환(17회)



강응모 (18회)



정명진 (18회)



조중형 (18회)



김경오 (19회)



이경옥 (19회)



윤건섭 (19회)



김현태 (20회)



박기배 (20회)



이호선 (20회)



정찬헌 (20회)



이세진 (21회)



홍종오 (21회)



강희윤 (22회)



김형근 (22회)



유대식 (22회)



박종화 (23회)



강한구 (23회)



임준석 (23회)



정덕기 (23회)



김승재 (24회)



이규삼 (24회)



최두주 (25회)



진희억 (26회)



최면용 (27회)



안희규 (28회)



양덕숙 (28회)



김광식 (30회)

제 15 대 이사명단

- 제1회 | 홍흥만, 김옥동, 김기홍, 김순일, 손동현, 이광표, 이동화, 장 레, 조덕열, 홍석부
- 제2회 | 고두흔, 김종욱, 서화택, 이문규, 이택성, 정덕화, 지선훈
- 제3회 | 노인배, 배영식, 김석자, 박종순, 선우연, 안경식, 이기상, 윤영식, 안재민, 이병균, 오세형, 최종묵
- 제4회 | 천흥기, 구본원, 김기호, 김춘근, 김현용, 김흥수, 문창하, 신영식, 박노일, 박승배, 정재현, 안국영, 우정희, 이광호, 이연수, 이창우, 최영만, 한민희, 허인희
- 제5회 | 김상오, 김명섭, 김영배, 김채윤, 박명자, 박영규, 신화우, 윤원영, 이명환, 이송학, 정훈교, 임영규, 조동준, 조휘제
- 제6회 | 임성기, 김경희, 김동열, 김명기, 김병기, 김태형, 신정숙, 유상열, 박정배, 안대훈, 안병한, 안인혁, 우병하, 이현영, 임완호, 최길영, 한병우
- 제7회 | 정재일, 강승안, 권오성, 김영덕, 김정부, 김영일, 박명신, 박상용, 박수배, 박숙자, 박양시, 배동운, 서명규, 신완균, 유영후, 이기안, 이능세, 이양현, 이용원, 장영수, 정조원, 최춘자, 한철희
- 제8회 | 조의환, 임상목, 김돈기, 허근희, 김연희, 김홍자, 문옥자, 배영애, 박도규, 곽유환, 박번일, 유영수, 장영자, 한석원, 윤주섭
- 제9회 | 권혁구, 이규진, 김의섭, 강군모, 권태섭, 김정관, 김정보, 김정완, 김창용, 상병준, 신순철, 양무웅, 이근배, 이광일, 이영숙, 조정기, 최인자, 허흥주, 황태선, 박성학, 손승언, 김영빈, 김영부, 김 철, 김학원, 윤광노, 박장우, 최영근, 허 룡, 임승진, 문영동, 이수자, 김광자, 김봉수, 전창선, 유병웅, 김형규, 김홍례, 노신희, 이찬호, 이종원
- 제10회 | 박호일, 유정사, 김정남, 변도문, 서정목, 이대운, 이양원, 이영민, 조규동, 장영조, 정수길, 주정덕
- 제11회 | 황공용, 정덕호, 박찬희, 김미자, 김창종, 민대식, 박신규, 박상희, 황문상, 허정범, 김승엽, 김정길, 이철규, 서세양, 최옥출, 김철홍, 박승보
- 제12회 | 심재웅, 노덕재, 이호섭, 강옥희, 김 구, 남기탁, 노석준, 박영찬, 우준하, 이효훈, 이성우, 조택상, 최병호, 이관하
- 제13회 | 안병식, 서국진, 김종성, 김병현, 문재빈, 박동규, 박현숙, 신선철, 이상길, 이종각, 이충식, 오영지, 엄계숙, 임유재, 송옥순, 최창엽, 황근성, 이우식, 정명우,

- 제14회 | 조길도, 김종렬, 구종모, 김명웅, 김영춘, 박기진, 신광근, 안태화, 양인승, 윤대봉, 윤성하, 정도연, 엄태항, 조양연, 지성배, 채성기
- 제15회 | 임영식, 안준택, 김승태, 김용의, 김형수, 박석동, 신대식, 이영운, 조찬휘, 박원봉, 원장희, 윤종준, 오세일, 이명숙, 고동석, 이인석, 위혜주
- 제16회 | 최광식, 조기현, 강명채, 권영복, 김광식, 송용만, 안태환, 이상규, 유기욱, 이은솔, 이은주, 하상권, 허사길, 박주영
- 제17회 | 양희익, 신상직, 김기종, 김대희, 김성지, 김성택, 김인형, 김인회, 김재천, 김종환, 김태성, 신창억, 유승화, 선우영환, 이동우, 장재인, 전상훈, 주완표
- 제18회 | 강응모, 정명진, 김기명, 김상각, 전광우, 조종형, 최수형, 임종진, 이원영, 김승열, 여운숙, 한창일, 박원래, 김애경
- 제19회 | 김경오, 김미담, 김홍욱, 남상구, 박효식, 안형수, 옥태석, 유태일, 윤건섭, 이경옥, 차영수, 민상임, 이은영, 신성희
- 제20회 | 이신규, 권오규, 김홍진, 김영섭, 김현태, 박기배, 정찬헌, 이호선, 이극선, 문주기, 최석중, 오상동
- 제21회 | 김두수, 김수배, 김동연, 김동학, 김진자, 백기홍, 백운경, 전명선, 유승울, 이규섭, 이종희, 이세진, 홍종오, 김병무
- 제22회 | 최광훈, 강희윤, 고부환, 강명희, 김종성, 김홍진, 박상용, 오황영, 이명옥, 이준상, 김철수, 손의동, 이현희, 김형근, 유대식, 이명수
- 제23회 | 강한구, 김영식, 박종화, 곽창림, 방용남, 양재업, 이도익, 임준석, 제갈희, 정덕기, 정세희, 조근태, 권석형, 강호영, 김진섭, 이승하, 박찬남
- 제24회 | 김승재, 갈원일, 김기환, 김동섭, 심영철, 원경선, 이광섭, 이규삼, 이범도, 이형수, 장규욱, 정종근, 조종래, 최명배, 최재운, 최영욱, 함삼균, 함한성, 김관식, 안병권, 윤규형, 임형균, 하영길, 황규진(A)
- 제25회 | 이내흥, 고성권, 김광호, 김영식, 김희섭, 이재희, 이민원, 최두주, 조석현, 전경숙
- 제26회 | 김정수(A), 김정수(B), 심상수, 진희억, 최민규, 황완균, 조필련
- 제27회 | 이창오, 김정호, 오흥설, 이무택, 최면용, 정웅섭, 박영달, 이선애, 민병희, 현기원
- 제28회 | 안희규, 정현숙, 김영희, 김희식, 양덕숙, 전금용, 장원규
- 제29회 | 이 준, 이진자
- 제30회 | 김광식, 고석일, 김성배, 도민숙, 백영주, 이장무, 최병원, 홍성광, 김향숙, 김연하

CAU 의에 죽고 참에 살자
"화합·단결·전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임원워크샵

일시: 2005. 7. 16~17 장소:레이크힐스 호텔 속리산



동문회소식

임원워크샵

- ◆ 일 시 : 2005년 7월 16일 ~17일
- ◆ 장 소 : 속리산 레이크힐스 호텔
- ◆ 참석자 : 권혁구(9회)회장, 이민원(25회)학장

김기홍(1회), 정덕화(2회), 오세형(3회), 최종목(3회), 김채윤(5회), 김명섭(5회), 임상목(8회), 윤주섭(8회), 한석원(8회), 이근배(9회), 권태섭(9회), 황태선(9회), 박호일(10회), 황공용(11회), 김 구(12회), 강옥희(12회), 심재웅(12회), 문재빈(13회), 박동규(13회), 김종렬(14회), 조길도(14회), 임영식(15회), 조찬휘(15회), 허사길(16회), 신상직(17회), 강응모(18회), 정명진(18회), 조중형(18회), 김애경(18회), 이경옥(19회), 김미담(19회), 김현태(20회), 박기배(20회), 이호선(20회), 정찬현(20회), 홍종오(21회), 강희윤(22회), 유대식(22회), 김영식(23회), 박종화(23회), 이규삼(24회), 최두주(25회), 진희억(26회), 김영희(28회), 김광식(30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발족이래 처음 실시하는 임원워크샵이 속리산 레이크힐스 호텔에서 1박 2일로 개최되었다.

권혁구 회장은 "이번 워크샵의 목적은 동문회의 화합, 단결, 전진에 있고, 동문회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는 인사말에 이어, 김명섭 자문위원은 격려사로 "이 뜻깊은 모임을 통하여 동문회가 하나로 화합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세 개조(화합조, 단결조, 전진조)를 구성해 분임토의를 하고 분임토의 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앞으로 동문회의 발전과 동문회식을 강조하며 뜻을 모았다.

이날 김기홍 고문을 비롯 김명섭 자문위원등 5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여 임원 워크샵의 열기를 뜨겁게 했다.

문화유산답사

- ◆ 일 시 : 2005년 10월 30일
- ◆ 장 소 : 서산 마애불, 개심사, 보원사터



“문화유산에 해박한 권혁구 회장의 해설로 동문 선·후배가족들의 탄성이 이어졌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가 처음시도하는 문화유산답사 행사가 지난해 10월 30일 열렸다. 아침 7시 85명의 선후배동문 가족들이 설렘마음으로 대한약사회관 앞에 모여 “우리는 한 가족”임을 보여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했다.

이날 답사는 서산마애불과 개심사 그리고 보원사터 등 우리나라 불교유적지를 포함한 문화유산을 관람 음미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는데, 우리나라 전국각지의 문화유산 및 관광지에 해박한 지식으로 정평이 있는 권혁구 회장의 해설이 곁들여져 모든 동문들의 탄성이 끝없이 이어졌다.

안면도에서 준비된 점심식사는 김영일(7회), 윤

주섭(8회), 권태섭(9회) 감사가 제공함으로써 감사들이 동문선후배를 섬기는 헌신이 아름다웠다.

저녁 8시 서울에 도착하기까지 동문선후배 가족들이 보여준 단결의 힘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라는 우리의 동질성을 더욱 자랑스럽게 나타내준 새로운 활력소였다.

1회 김기홍, 송문영, 이동화 선배를 비롯 오세형, 최종목 고문 부부, 김채운, 임완호, 유영후 고문부부, 등 역대 동문회장들과 30회 김광식 동문 부부에 이르기까지 선후배들이 보여준 가족과 같은 분위기는 우리 동문회로서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한 즐거운 문화유산답사였다.





제35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 일 시 : 2005년 10월 9일
◆ 장 소 : 중앙대학교 부속중학교 운동장

▷ 조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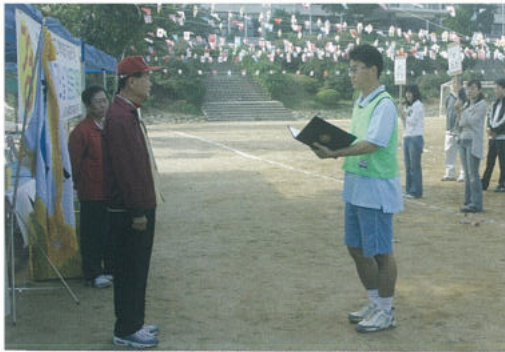
- | | |
|----------------------------------|-------------------------------------|
| 1조 : 종로, 중구,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 천안 | 2조 : 동대문, 성북, 도봉·강북, 중랑, 노원, 제주 |
| 3조 : 관악, 동작, 영등포, 구로·금천, 서초, 강원 | 4조 : 성동·광진, 송파, 강남, 강동, 대전, 대구, 부산 |
| 5조 : 강서·양천 | 6조 : 광명, 파주, 시흥,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평택 |
| 7조 : 수원 | 8조 : 인천 |
| 9조 : 안양 | 10조 : 안산 |

흠뻑 땀은 체육대회가 끝나고
그 자리에 모여
행운권 추첨 및 장기자랑으로
진행되었다.

경품으로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이
자전거 3대, 서울시약사회 권태정 회장이
백화점 상품권 3매 등 푸짐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동문들의 잔칫날이 되었다.

오랫동안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걱정스러운 것
은 날씨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동문이 참석할 것인
가 이었다. 아침부터 날씨는 청명했다. 걱정은 한가
지 몇 명의 동문들이 참석할까?이다. 걱정스러운 마
음으로 선물과 준비물을 챙겨 운동장으로 가면서 내
내 기도한다. 많은 동문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드디어 개회식이 거행되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2
주년 기념 제35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하며
권혁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평소 약업현장에서 바
쁘게 달려온 일상을 훌훌 털고 오늘 하루만은 선·후
배들이 하나가 되어 한마음으로 기쁜 시간들을 만들



종합우승 : 안양지부
준우승 : 수원지부
3위 : 도봉지부

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내빈으로는 김기홍(1회), 오세형(3회), 최종묵(3회), 유영후(7회), 임상묵(8회) 고문, 김종갑 명예교수, 김일혁 명예교수, 손동헌 명예교수, 허인회 명예교수, 김명섭 의원, 김구 약사공론주간을 비롯 장복심 의원, 전영구 전서울시약회장, 이정현 이대총동창회장, 백경신 재무이사, 관순애 동덕약대총동문회장, 홍순용 덕성약대 서울동문회장, 성수자 덕성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윤명선 부회장, 신충웅 관악구 약사회장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체육행사로 먼저 9월 26일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총 20팀(80명)이 참석해 심페리올 방식으로 게임룰을 정해 관악지부가 1등을 차지했고, 2등 안양지부, 3등 인천지부가 우승했다. 개인우승으로 1위 김영일(7회), 메달리스트 이국재(29회), 2위 조길도(14회), 3위 김덕수(31회), 4위 김현태(20회), 또 서코스 룡 이원영(18회), 니어 조중형(18회), 동코스 룡 진창연(35회), 니어 임준석(23회), 행운상 이민원(25회) 학장, 막내상 강의석

(35회) 동문이 차지했다.

축구, 바둑, 테니스 등은 예선·결승전으로 진행했다. 이날 축구는 팽팽한 예선전을 거쳐 안양지부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테니스는 평소 참석이 어려웠던 지부들이 참여해 1등 부천지부, 2등 시흥지부, 3등 은평지부가 감격의 우승을 했다. 바둑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몇시간씩 진지한 모습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바둑은 1등 수원지부, 2등 도봉지부, 3등 서초지부가 차지했고, 종합우승은 안양지부, 준우승 수원지부, 3위는 도봉지부가 차지했다.

홈커밍 데이는 체육대회가 끝나고, 그 자리에 모여 행운권 추첨 및 장기자랑으로 진행되었다. 경품으로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이 자전거 3대, 서울시약사회 권태정 회장이 백화점 상품권 3매 등 푸짐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동문들의 잔칫날이 되었다.

이날 걱정과 다르게 4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모교의 날 행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다



초도이사회

- △일시 : 2005년 7월 23일 오후 6시
 △장소 : 프라자호텔 (덕수홀)
 △안건 : 1. 2005년도 예산(안)심의 건
 2. 2005년도 사업계획(안)심의 건
 3. 기타토의 사항



여동문회의

- △일시 : 2005년 9월 3일 오전 12시
 △장소 : 세종호텔(진달래 3층)
 △안건 : 1. 경과보고
 2. 체육대회 및 홈커밍데이 개최의견
 3. 약국경영에서의 탈모관리 특화설명회
 [허근희(8회) 자문위원]
 4. 기타토의 사항.



장학기금위원회

- △일시 : 2005년 9월14일 5시
 △장소 : 동문회관
 △안건 : 1. 2005년 2학기 장학생 선발의 건
 2. 기타토의 사항



회장단 회의

- △일시 : 2005년 11월 24일 오후 6시
 △장소 : 동문회관
 △안건 : 1. 동문회 활성화 방안의 건
 2. 동문회 약사회무 참여 방안의건
 3. 기타토의 사항



강 한 구
(23회, 동기회장)

그리운 우리 벗들!



우리는 75년도 약대에 입학할 하면서 만나, 어느덧 작년3월에 입학 30주년이 되었습니다.

각자 자기 맡은바 분야에서, 열심히 한몫을 담당하고 있는 어엿한 50대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시절이 좋은줄 모르고, 힘들게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제3공화국의 불안한 시절로, 대학생들의 데모가 끊이지 않았고, 우리 약대생들은 학과공부에 시달리느라 비교적 데모의 물결에 휩쓸리진 않았으나, 거의 항상 여러가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들의 젊은피를 끓게 한 사건들이 신문지상을 장식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동기들 모두 한창 빛나던 젊음이 있었고, 그 열정을 짝 짜여진 약학도의 생활에 꿈쩍없이 퍼 부어야만 했습니다.

약대 실험실 앞 루이스가든에서, 그 시절 별 반찬도 없이 도시락을 까 먹기도 하고, 학교앞 그린하우스 지하에서 라면국물에 밥을 말아먹어도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그저 즐거웠습니다.

졸업 후 얼마안되 지방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친구도 있었고, 또 친구군은 결혼후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시절 약수, 약창, 약협등 다른 약대생들과의 씨름활동도 활발했었고, 칼라무스 합창단, 실험반 활동에도 많이들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모두들 잘 다듬어진(?) 중년의 모습으로... 동기회장인 저 개인적으로는 바이엘에 전무이사로 있고, 권석형군은 렉스바이오진대표로, 이승하군은 얼마전에 주식회사 파마트로닉이라는 회사를 창업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으로 나간 홍순욱군이 식약청에 사무관으로 있고, 모교인 중대약대에 이도익교수, 겸임교수인 박희용군, 은누리건강 대표이사 이면서 겸임교

수인 박종화군등이 있고, 오랜 미국생활에서 돌아와 몇년전부터 동덕여대에 교수로 있는 한용문군, 바쁘다는 핑계로 동창회에 한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는 알뜰기도한(?) 키스트 독성학 연구실 류재천 박사 등이 있습니다.

약사회쪽에는 서울시 성동구 김영식군, 종로구 임준석군, 중랑구 정덕기군이 분회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민간 친구들 중에는 미국에서 약대교수인 최동철박사, 미국약사인 전재우군 그외에도 경기도 안중에 과대표였던 양재업, 이영림부부, 또 그지역 의료인들과 밴드를 결성해 리드기타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조병학군이 있고, 천안등 충청도지역에 최동순, 방용남, 안병만 정상섭 조경준 동문들, 춘천지역 안봉국군등 전국 방방곳곳에 많은 동문들이 약국을 개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졸업10주년, 20주년, 입학30주년 등 행사를 치루고 이제 연말모임이나, 경조사등에서나 얼굴을 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어감을 실감하는 일 중에 하나는 작년에 조근테, 김연숙 커플부부가 사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모여야겠고, 또 우리모두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배려해줄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약대입학이라는 계로 만나, 약대시절을 동거동락하며 같이보낸 우리친구들.... 언제, 어느곳에 있든지, 우리는 동기동창임을 부인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동창회에 나오지 못하던 친구들, 오랫동안 얼굴뵈지 못한 교수님들...모두들 이제는 서로 안부라도 전하면서 즐겁게 나이를 먹어갔으면 하는것이, 저를 비롯한 여러친구들의 바램일 것 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는 자주 모입니다.



"파이퍼 1971" 졸업 30주년 기념



김 경 오 회장

19회 졸업 30주년을 기념하며

존경하는 한덕용 학장님을 비롯한 김일혁교수님, 김종갑교수님, 손동헌교수님, 김기호교수님, 허인회교수님, 홍순각교수님, 신화우교수님, 임철부교수님, 김창중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고 약사라는 천직을 갖게 해주신 교수님들께 우리 71학번 동기들 모두는 졸업 30주년을 맞는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모임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지난 34년전의 1971년도 당시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교양학부 시절 학교 정문을 지나 의혈탑을 지나 도서관을 지나 맨 꼭대기 이공대 건물까지 혈떡이며 다니던 기억들, 2학년때 파이퍼홀에 입성해서 유화수소 냄새를 맡으며 실험하던 생각들, 연못시장에서 유신독재를 논하며 밤새도록 젓가락 두들기며 막걸리를 먹고 떠들던 추억, 고향에서 향토 장학금이 오면 술집, 구멍가게

외상값 갚고 며칠 후면 또 찢찢매던 친구들... 파이퍼홀 앞에서 담배 피다 걸려서 혼났던 친구들...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는 추억을 생각하며 요즈음 우리의 아이들은 나보다 착하다고 혼자 미소를 지어봅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그리고 동기 여러분!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우리는 얼마나 귀중한 인연의 끈들로 싸여져 있는 사이입니까?

우리는 우리들만의 값지고 귀한 인연들을 바쁘다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방치해 두었습니다. 개국약사는 눈만 뜨면 약국에 매여 한 치의 여유도 없고, 비개국은 나름대로의 생활에 전혀 틈이 없어 모두가 눈앞의 일로 숨 가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년 만에 혹은 삼십년 만에 친구들을 만나보니 어느덧 머리에는 하얀 물감이 덧발라 있고 얼굴에는 세월의 발자취가 진하게 박혀있어 세월이 덧없이 빠름을 새삼 느끼면서 같은 세대를 살면서 같은 문화



를 공유한 우리 71학번 동기들끼리 잠깐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힘 드는 일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들의 넉넉함을 가지고 지난 30여년의 회포를 푸는 그리고 앞으로 자주 만나

연못시장에서 유신독재를 논하며 밤새도록 젓가락 두들기며 막걸리를 먹고 떠들던 추억, 고향에서 향토 장학금이 오면 술집, 구멍가게 외상값 갚고 며칠 후면 또 찢찢매던 친구들...파이퍼홀 앞에서 담배 피다 걸려서 혼났던 친구들...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는 추억을 생각하며 요즈음 우리의 아이들은 나보다 착하다고 혼자 미소를 지어봅니다.

이젠 오늘처럼 무슨 날이어서가 아니라 보고 싶을 때 보고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동기들의 만남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권창호 동기가 다음 카페에 파이퍼 1971이라는 이름의 동기카페를 만들어서 현재 50여 동기가 온라인 상에서나마 자주 만나고 있고 멀리 미국의 김원규 김선기 오상욱 동기와도 자주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매우 편리한 시대가 되었고 이런 기회에 우리들도 업그레이드해서 시대에 맞는 온라인 채팅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젠 자녀들을 결혼시켜 할아버지가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세월은 빠릅니다. 더 늙기 전에 등산도하고, 골프도 하고, 그리고 각종 애경사에 찾아다니며 우리의 옛정을 다시 찾는 우리 동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해주신 교수님, 그리고 반가운 마음에 불원천리 멀다 앓고 한걸음에 달려온 우리 동기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자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만 사형통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동 · 광진지부



정 한 용
(22회, 성동지부 총무)

성동 동문회는 오랜 시간동안 광진 동문회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지난 90년에 광진구가 성동구에서 분구 되었지만 우리 동문들만은 여전히 한마음으로 함께모임을 하고 있다.

최근 청계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독섬에 35만평의 서울 숲이 조성되면서 성동·광진 지부는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명소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청계천이 50여년 만에 다시 흐르게 된 것처럼 우리 동문이 힘차게 하나로 크고 넓게 함께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성동·광진 지부는 양희익 성동 지부회장님, 김수련 광진 지부회장님을 위시해서 선·후배 동문들이 한 가족 처럼 가까이 지내며 매년 연말이면 성동과 광진을 오가며 송년 모임을 개최하고 선·후배 우애를 다지고 있다.

또한 성동구약사회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영식 분회장을 비롯해 4명의 동문 임원이 회무에 충실히 임해 이 또한 중대 동문의 자량이 아닐 수 없다.

김영식 분회장은 총동문회 사무부총

장으로 제35회 모교체육대회 진행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해 어느 해 보다 행사를 성황리에 마쳐 많은 선후배 동문들로부터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을 받았다.

또한 성동구 약국위원장 최수항 동문(샘터약국)은 약학박사로 동덕여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힘쓰고 약사회무도 열성으로 임하고 있다. 항상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는 후배가 정말 자랑스럽다.

광진구의 유승률 동문께서는 지난 5월 광진문화예술회관에서 아차산의 유적사진 전시회를 가져 사진작가로서의 명성과 역량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

한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지난달 성동 동문회를 활발히 이끌어 주시던 조주행(5회) 회장님께서 오랜 병고 끝에 세상을 떠나셨다. 동문들의 마음을 모아 삼가 명복을 빈다.

앞으로도 성동·광진 지부는 지부 뿐 아니라 총동문회와 모교의 발전에 견인차가 될 것을 다짐해 본다



김종렬
(14회, 사무총장)

파키스탄 지진현장을 가다

10월 8일 파키스탄 카시미르 지역에 광범위 하고도 강한 지진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건축물들이 무너졌다고 뉴스에서 들었다.

대한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10월15일 의료 봉사단을 파견하는데 의사2명, 한의사2명, 약사2명, 간호사2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본인이 불교 약사회 회장이라서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여러 약사 법무님들께 연락해 보았으나 장기간 약국을 비울수가 없어서 결국 내가 가기로 하였다. 17,18,19일 수속과 의약품, 위생재료 수술 기구 등을 사입하고 대한약사회에서도 의약품을 지원받고 약사 보리회에서도 지원을 받아 2000명정도 치료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끝내고 10월 21일 조계사 총무부에서 발대식을 하고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선발대의 조사 내용은 우리가 가는 “발락코트”라는 지역은 피해가 제일 심한 곳이며, 낮 기온은 25C 이상이고 해가지면 5C 이하로 내려가며 여진이 계속진행 중이고 경우에 따라서 헬기로 이동진료도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서 비행기가 오후5시30분에 이륙했다. 방콕까지 5시간이 걸리고 방콕에서 다시 5시간이 걸려서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하니 새벽 5시가 되었다.

우리나라보다 4시간이 늦다. 한국시간으로 9시가 되어서 도착한 것이다.

22일 새벽에 미니 버스 2대로 짐과 모든 봉사자들이 탑승하고 3시간 걸리는 “에보트바트” Shelton Inn.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여 진료 복으로 갈아입자마자 휴식도 없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밤새 비행기를 타서 무척피곤한데도 선발대로 갔던 최종환부장의 일정 및 주의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우선 여진이 계속 진행되므로 잠잘 때 뛰어 나올 수 있도록 옷을 벗고 자지 말 것. 모든 여진이 열악하므로 개인행동은 금할 것. 지진 발생지역은 카시미르와 북부지역일부, 그리고 발락코트인데 발락코트가 제일 심하고 고원지대라 진료하는 장소가 평지인데도 해발 1200m이고 멀리보이는 산들이 해발 3-4000m로 산 정상에는 눈들이 덮여 있었다. 발락코트에 들어가니 “아랍에미레이트” 군부대 후송병원이 와 있

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린닥터와 119구조대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국립의료원과 대한 의사회에서 파견한 팀들은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산병원 의료팀이 방콕에서 만나서 우리와 같이 이슬라마바드에서 내렸으나 그들은 병원으로 파견 되었다. 아산병원 팀들과 함께 동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석현의원도 방콕 공항에서 만나 이슬라마바드까지



같은 비행기에 탑승 하였다.

현지에 도착하니 진료 텐트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었고 환자들이 몰려 있었다. 우리는 작은 텐트 2개를 더쳐서 모두 5개의 텐트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및 바닥에는 자갈밭이라 돌들이 깔려 있었고 전기 시설이 파괴되어 6포 자리 약포



장지를 풀칠을 하여 부쳤다. 주위에는 부패하는 냄새와 여기저기 늘려 있는 오물냄새, 옷 가지를 태우는 냄새, 디젤자동차가 뿜는 매연냄새가 진동 하여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러한 환경은 오는 날 까지 계속 되었다.

진료가 시작되니 1세 어린이부터 90세노인 까지 다양하나 8세에서 12세는 그의 없었고 질환은 외상 환자와 정신질환환자로 불면증과 위장병 그리고 무기력상태, 영양실조, 호흡기환자, 피부병환자들이 주종을 이루었고 후송환자도 간간히 있었다. 지진 발생 며칠이 지나 눈물이 매 말라서 인지 울지도 못하고 멍하게 먼 산만 바라보았다. 오후 반나절의 신고식을 오후 4시에 마치고 피해주위를 둘러보았다. 지진발생 시간이 오전 10시 50분이라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던 2500여명(8세~12세)이 그대로 내려앉은 학교 건물에 깔려 전원이 희생 되었고

재래시장으로 보이는 커다란 2층 건물도 자체가 무덤으로 변해있었다. 7층 호텔 건물도 땅속으로 주저앉아 건물 꼭대기만 보였다. 교량도 갈라져 있었고 산중턱에 있는 집들도 그대로 무너져 있었고 산등성이라도 무너져 내렸고 산이 갈라져 있어 멀리서보면 자동차길 같아 보였다.

무너진 산등성이 집들 위로 산가마기는 고인들의 영혼을 달래느라 이리저리 맴돌고 있었다.

우리일행은 2시간 걸리는 숙소로 차를 타고 와서 저녁을 먹고 여장을 풀었다. 몹시 피곤했다.

이곳은 라마단 기간이라 아침4시에 식사를 하면 오후 5시30분까지 물도 한 모금 먹지 않고 굶어야 한다. 97%가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었다. 하루에 기도를 5번 했다. 재난으로 기진맥진 하면서도 계

울은 모두들 지키고 있었다.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나 이동 중에 모두들 잠이 들었다. 밤새 여진으로 두려워 꼬박 밤을 새웠던 탓으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버스 내와 텐트속이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서 맘 놓고 잠을 잘 수가 있었다. 가는 도중에 여진으로 산이 무너져 20분간 기다려야 했다 그곳은 매일 아침마다 반복해 무너져 내렸다.

진료순서는 첫 번 텐트에서 먼저 접수를 하면서 양의와 한의를 구분해서 배치하였고 양의는 두 번째 텐트에서 내과와 외과선생님이 진료하셨고 세 번째 텐트에서는 한의 선생님들이 진료 하셨고 네 번째 텐트는 주사실 그리고 다섯째 텐트에서는 송희숙 선생님과 나와 봉사요원이 투약을 하였다.

송희숙 선생님과 나는 초콜렛과 과자류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가서 투약할 때 주로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던 중 한 살 된 남아가 부인(22세)에게 안겨서 감기로 약국엘 왔다. 초콜렛을 주니 받지 않고 던지곤 하였다. 계속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울기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부인이 이번 지진으로 애기 엄마가 죽었다고 한다. 애기가 울며 보채는 것이 분명 엄마를 찾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흘렀다. 기구한 인생을 이제 한 살인 애기가 어찌 살아갈꼬.

이곳 결혼은 남자 22세 여자 18세인데 20세 여인이 어린애가 두 명이 보통이었다. 상당히 조흔이고 남자들은 수염을 길러 나이가 실제보다 10세 정도는 많게 보였다.

우리 봉사 팀은 식사시간 10분외에는 진료를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환자들이 밀려들어 내려 찌는 태양열도, 피로도 잊은 채 모든 일정을 소화 하였다. 우리가 한일들은 이들에게 현재 필요한 도움 중 천만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머나먼 이국의 아픔에 다소나마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점으로 스스로 만족하면서 발락코트에서 계속 복진하면 카시미르를 거쳐 K-2봉으로 갈 수 있고 발락코트는 산악인들이 머물러 가는 곳이라고 하는데 하루빨리 재건하여 평온을 찾기를 봉사대원들은 기도 하였고

우리가 사용하던 모든 치료 도구와 의약품은 후진
으로 도착한 고려대 의료팀에게 인수인계하였다.

이들은 남녀모두가 이슬람 전통의상을 입기 때문에
각국에서 지원한 옷들을 입지 않고 오로지 잠자리에
까는 용도로만 쓰고 그의 대부분은 버려져 있다. 신발
은 양말도 없이 낡아빠진 슬리퍼만 신고 있었다. 아마
도 무너진 집 더미에 모든것이 깔려있는지 겨울은 닥
쳐오는데 텐트 생활로 긴 겨울을 지내야 할 것 같다.
물과 음식은 트럭으로 일정시간 배급되는데 이 시간
에는 트럭 뒤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렸고 젊고 힘 있
는 자들은 줄을 서지 않고 제멋대로였다.

나는 신고 간 현 운동화를 벗어주면서 새것이 아
니라도 상관없냐고 했더니 감사하다고 받아갔다. 송
희숙 선생님과 나는 가져간 침낭도 나누어 주었다.

이곳 현지인들은 이번재난을 알라신의 뜻이라고
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발락코트가 관광지라 무질서에 대한 알라신의 준
엄한 심판이 내려졌고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두
체의 건물주인은 이슬람의 계율을 잘 지킨 가정이
라는 소문들이 있었다.

우리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발락코트를 떠나 이슬
라마바드로 가는 길에 펙실라 라는 도시에 있는 줄
리안 불교대학 사적지를 둘러보았다. 아소카왕시절
에는 이와 같은 대학이 1300여개가 파키스탄에 있었
다고 하였다. 그 당시는 JAULIAN 이라고 이름 하
였으나 1946년 줄리안이라고 변경되었다고 하였다.
이곳은 2층 건물로 한사람 당 방 한 칸이 주어 졌고
면벽하여 참선할 수 있도록 방마다 칸막이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부처님의 실지 좌상이신
모습을 보게 되어 불자로서 무한한 영광이었다.

27일 저녁은 한국인이 3년
전부터 경영하는 클럽-서울에
서 숙박을 하였고 다음날 7시에
출발하여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슬라마바드 시내를 1시간 30
분 동안 둘러 보았다.

수도는 인구60만의 도시로
집들 모두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고 건축 허가가 설계도가
달라야 허가 된다고 하였다.

200여 평의 대지에 나무가 곱 들어 차있어 멀리서
는 숲으로 밖에 보이질 않았다. 도시 전체를 녹색지
대로 만든다는 것이 행정가들의 정책이라고 하였
다. 서울과 비교하면 너무나 괴리감이 들었다.
1960년에 조성 되었다고 했다.

FASAL MOSQUE 라는 무슬림사원은 시내 가운
데에 넓은 장소를 차지하여 웅장하게 서있었다. 인
구의 97%가 신도이니 그럴 수밖에 없겠다.

우리들과 함께 통역에 참여한 하비브, 나나, 문-,
햇 신, 학은 한국의 근로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환자들과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아마르
와 그의 부친은 가이드로서 영어를 능통하게 구사
하여 후송과 안내 등 불편함이 없었다. 항상 친절했
고 자국의 도움에 대하여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였다. 27일 밤은 아마르 아버지가 야경이 찬란한
곳에서 감사의 표시로 저녁식사를 샀다. 양고기 닭
고기와 짜파티가 식욕을 돋우었지만 이슬람은 술을
먹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한편 허전 하였다.

투약을 하는 동안 현지인들은 감사 하다고 연신
때 묻은 손으로 악수를 청했고, 나는 어린이가 오면
불쌍히 여겨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고 얼굴도
만져주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손과 몸이 몹시 가
려워 졌지만 행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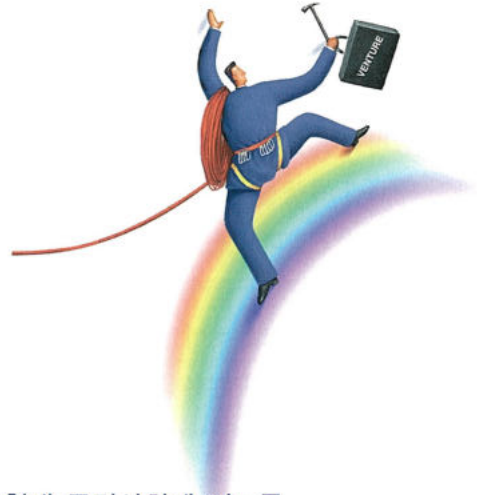
통역인 문-이 파키스탄인 들에 대한 소감을 물었다.
내가본 파키스탄인 들은 온순하고 느리고 가난하지
만 자존심이 강하다고 답해 주었다. 하루빨리 재난
을 극복하고 알라신의 축복이 내리기를 기원해 주
면서 우리는 굳게 악수를 하고 일주일의 만남을 이
렇게 마감하였다.

부처님의 가피가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도전 . . .

조영만
(3회, 미주동문)



대자연의 순수함, 아름다움, 장엄함이 현대 문명사회에 찌드른
우리 대원들을 기계문명의 틀에서 벗겨내어 자연인으로 탈바꿈시켜 주는 듯 했고
왜 이지방이 세계에서 가장 장수 할 수 있는 곳인가에 해답을 주는 듯 하였다.

유럽대륙의 최고봉 Elbrus산으로 통하는 Baksan계곡에 들어서니 또 다른 별세상이 펼쳐져 우리 일행을 반겨주었다. 아스팔트 대로에서 수 십마리 소 무리 속에 섞이고, 양편의 산 중턱에는 풀을 뜯는 양떼 그리고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계곡의 물소리, 보고 들으며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유토피아를 향해 가고 있는 착각에 빠져들게 하였다.

대자연의 순수함, 아름다움, 장엄함이 현대 문명사회에 찌드른 우리 대원들을 기계문명의 틀에서 벗겨내어 자연인으로 탈바꿈시켜 주는 듯 했고 왜 이지방이 세계에서 가장 장수 할 수 있는 곳인가에 해답을 주는 듯 하였다. 작은 부락에는 여기저기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인들 70여세로 보이니 이들의 나이가 보통 90아니면 100살이라 하지 않는가. 우리가 환갑 나이란 고정관념에 구애받아 소심해지고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 새 활력소로 작용 할 것임에 무척이나 고무 되었다.

찌르스콜(2,130m), 만년설 스키장 입구에 도착할 때 까지 버스에 의한 여행을 하면서 받은 느낌이었고 드디어 내일 (5/24/05)부터 본격 등산 일정을 시작할 수 있는 Elbrus

산의 입구에 도착하였다.

훈련 첫날(5/24/05)은 만년설의 체켓봉(3,985m)을 오르는 산행 Losangoes에서 Moscom 까지 13시간 비행하고 다음날 Moscom에서 민보드까지 2시간반 동안 국내선 비행 그리고 계속된 버스로 3시간의 긴 여행으로 고소증과는 상관없이 힘이드는 훈련이었다. 그러나 체켓봉

에 올라 섰을때 펼쳐진 Elbrus 정상(동봉과 서봉)과 산맥의 웅장한 고봉의 파노라마에서 힘들었던 거 만큼 아니 그 몇배 만큼의 보람을 느껴 모두 환호하며 즐거움으로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훈련 둘째날(5/25/05) 찌르스콜에서 밀스테이션(3,470m) 그리고 더 올라 가라바시(3,800m) 베이스캠프까지 쉽게 짐을 옮겨 놓고 바로 푸릿트(4,157m) 까지 오르는 산행이 계속되었다. 등산경력이 짧은 새 대원과 높은 산이 없는 펜실베니아주에서 참가한 본인에는 베이스캠프까지 쉽게 오르게 오히려 힘든 산행을 하고 올라 왔을때 얻을수 있는 적응의 기회를 뺏은 것 같아 반가워함 할 것이 아닌 것 같았다. 그리서 안내회사에서는 5일간의 적응훈련을 요구한게 아닌가. 그러나 Rorean American Alpine Club은 Whitneg 산을 위시 4,000m 이상의 Sieva산맥에 고봉을 꾸준히 오르며 훈련을 했기 때문에 3일간으로 줄여 계획을 하였으니 나오서는 무척 부담스런 산행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진정 고도 4,157m에서 훈련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훈련 셋째날(5/26/05) 어제 훈련으로 고소증을 심하게 당한 5명을 제외한 대원들이 마지막 훈련인 응급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Pickel등을 사용하는 훈련을 푸릿트까지 다시 올라 반 나절의 힘든 훈련을 모두 마치고 내일의 최종 정상공격을 위해 일찍 휴식과 수면으로 준비를 완료하였다.

5/27/05 새벽 3시 기상, 고소증으로 고생하는 7명을 제외하고 9명은 4시 출발에 대비한 준비에 정



신이 없었다. 묵직한 방한복, Gampon, Harmes, Headlamp, Pickel등으로 완전무장을 하고나니 몸은 천근만근이 되는 듯 무거워 정상까지 10시간 그리고 하산에 4시간의 힘든 산행을 해 낼지 반신반의 하며 영하 20도의 매서운 추위속의 어둠을 뚫고 오르기 시작하였다. 극지 방한용 병어리 이중장갑을 낀 손마저 동상을 염려할 만큼 시렸다.

잘 훈련된 그리고 젊은 대원이나 그렇지 못한 늙은 대원이나 모두 힘들어 하기는 마찬가지 그러나 극한 상황에서 이겨내고 또는 포기하고 좌절하는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 아닌가 최선을 다하자는 일념으로 힘든 한발 한발 옮기기를 계속할뿐 아무 다른 생각은 떠오를 여지가 없었다. Partukhova Rock(4,690m)에서 부터는 산소 부족으로 심장에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얼굴은 태양과 만년설 반사빛으로 부르터져 고통에 고통의 가중으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주변의 장엄한 경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주저 않고 싶은 간절한 욕구가 있을 뿐이었다. 이미 체력의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되었고, 의지력으로 오를 수 있을

때 까지 오르자고 다짐 다짐해 힘든 발거음을 옮기며 Saddl(5,416m)까지 오르고는 고꾸라져 무더졌다. Elbrus 정상까지 250m를 남겨놓고 11시 35분에 하산을하기로 결정을 하고 돌아섰으나 지칠대로 기친 상태라 하산길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미끄러지며 넘어지고 눈발에 구르며 걷기를 거듭하며 베이스캠프를 향한 하산길... 내려가고 내려 가도 굴르다 미끄러지며 넘어지며 끝이 없는 것 같다. 1시간여 거리를 남겨 놓고 예외 없이 오늘도 눈보라가 쏟아지기 시작이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말라는 경고이리라 생각하며 더욱 힘들어진 하산길로 대장정의 Elbrus 등정을 끝마무리 하게되었다.





성귀현
(19회, 동문)

내 인생의 블루오션은 산삼이다

사실 블루오션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오던 현상일 텐데 가치혁신(Value Innovation)론의 창시자인 김위찬 교수와 르네 마보안 교수(프랑스 인사이드 경영대학원)가 내는 첫 단행본 “블루오션전략(Blue Ocean Strategy)”가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판사(HBSP) 역사상 최다 언어 번역 기록을 세웠다고 하여 가히 경제계에 미치는 반응의 폭발력을 가늠한다. 우리나라에는 지난해부터 조금씩 소개되기 시작하여 올해는 청와대와

은 길이 보인다.

약국을 25년 동안 열고 일하면서 좌절과 시련이 끊이지 않았다. 의료법에 약사가 의료인에서 제외된 현실이 말해주듯이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인식은 개인적인 열정만으로 개업약사의 보람을 찾기에 장애물이 많았다. 기형적 의약분업시스템으로 인하여 약사가 적극적인 연구자로서, 연구 성과를 통해 소비자들을 돕는 보람을 찾을 기회가 막힌다는 것도 나를 좌절하게 만들었다.

길은 스스로 찾는 자에게 열린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었다.

웰빙산업에 대한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과 아로마 요법의 열풍이 불자, 그 정점에 고려 산삼이 존재함을 발견한 기쁨에 전율하게 되었다. 산삼이야말로 아로마의 정수이자 최고봉에 이른 방초가 아닌가?

우리나라의 산삼이 외국으로 건너가면 모양은 산삼과 닮았으며, 이미 산삼이 아닌 이종의 식물로 변모함에 경쟁력의 비결이 숨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산삼의 매력에 푹 빠져서 산삼을 통한 자연요법과 대체요법에 대한 관심으로 생약연구에 매진하게 되었고, 자연요법과 건강산업에 대한 열정에 박차를 가해주는 요소가 되어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리라 결심하게 되었다.

한국최초로 산삼견학장을 투명하게 오픈 하는 목적은 산삼의 효능과 가격과의 상관관계로 인하여 수억 수천만 원에 거래되는 산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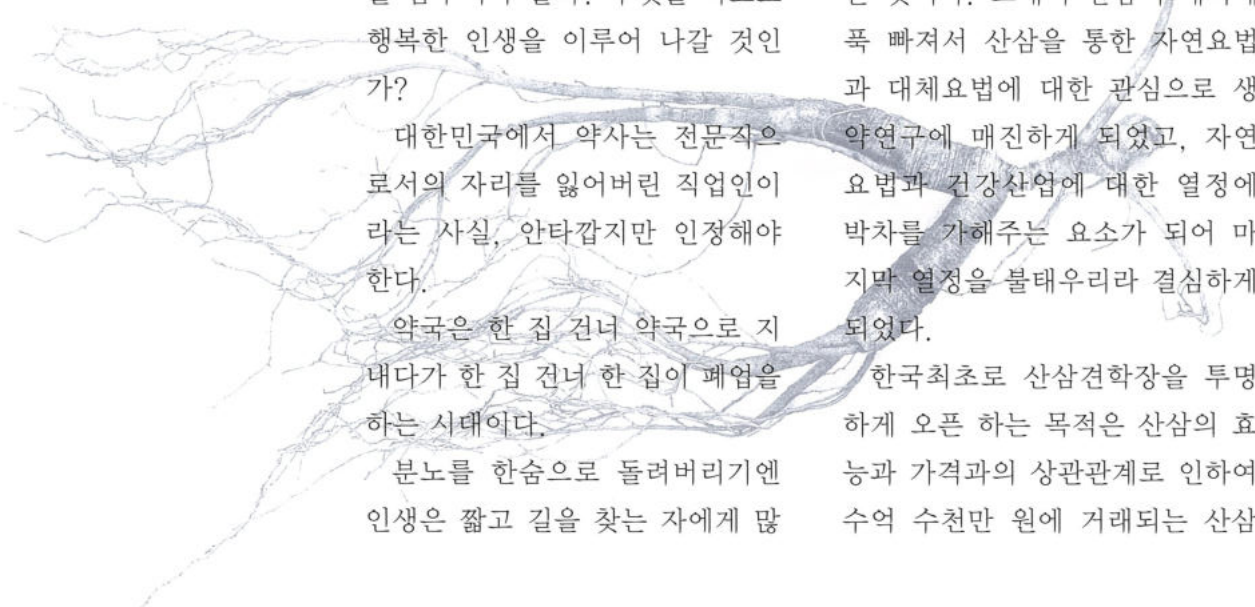
각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대기업들이 앞 다투어 블루오션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약국 2~3년만 하면 집이 한두 채 생기던 황금시절도 있었다지만 약사들은 이제 무엇을 통해서 사회적인 성공을 꿈꾸어야 할까? 무엇을 목표로 행복한 인생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약사는 전문직으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린 직업인이라는 사실, 안타깝지만 인정해야 한다.

약국은 한 집 건너 약국으로 지대다가 한 집 건너 한 집이 폐업을 하는 시대이다.

분노를 한숨으로 돌려버리기엔 인생은 짧고 길을 찾는 자에게 많



이미 형성된 경쟁시장에서 제로섬게임 개념의 전쟁 같은 레드오션(붉은 피 바다)의 대응개념으로 새롭고 경쟁이 없는 푸른 바다의 개념으로 창조해 나가는 블루오션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블루오션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기업)은 극소수이다.

그러나 그 성공사례는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실행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는 거대자본이 없어도 기회가 온다는 것이다. 젊은 약사들이여, 열 평의 인생이라고 자조하기에도 두려운 전쟁 같은 상황에 미리 기죽지 말고 세상의 드넓은 푸른 바다로 나아가자.

의 실체는 장막에 가려져 있다.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산삼의 도움을 받지 못할 정도로 겹겹이 싸인 베일을 걷어내고 사전에 차단하여 산삼의 대중화를 통하여 필요할 때 적절하게 공급 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몇 가지 실험적 연구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에 산삼의 엑기스생산연구와 산삼산업에 도전하려는 지원자를 위한 대량보급의 과제를 연구하기에 벅찰 정도로 비전은 밝다.

이제 한국의 고려 산삼은 밝은 곳으로 나와 그 자태를 뽐내게 되고 베일 속에서 비밀리에 온갖 사기술을 펼치던 것들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알면 알수록 산삼의 힘과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된다.

하늘이 맑은 날, 새벽에 뽀얀 안개를 뚫고, 수령 백 년 이상의 적송 숲에서 강렬하게 내쏘는 피톤치드의 향연은 나를 선정에 노니는 선인이

된 듯한 착각에 들기에 충분하다. 앞으로 세계 속에 한국 산삼만의 유일무이한 위력을 펼쳐 보이고 당당하게 세계명품의 경쟁력으로 우뚝 설 시기를 눈앞에 펼쳐 보이려는 신념이 나의 블루오션 전략의 작은 일부분이다.

이미 형성된 경쟁시장에서 제로섬게임 개념의 전쟁 같은 레드오션(붉은 피 바다)의 대응개념으로 새롭고 경쟁이 없는 푸른 바다의 개념으로 창조해 나가는 블루오션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블루오션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기업)은 극소수이다. 그러나 그 성공사례는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실행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는 거대자본이 없어도 기회가 온다는 것이다. 젊은 약사들이여, 열 평의 인생이라고 자조하기에도 두려운 전쟁 같은 상황에 미리 기죽지 말고 세상의 드넓은 푸른 바다로 나아가자.





최 면 용
(27회, 부회장)

기능식품의 효과적인 판매를 위한提言

의약분업 이후 약국활성화의 가장 큰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능식품을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약사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적시함으로써 판매의 효율성과 지속적인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철저한 이해과 지식이 필요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약국 활성화에 절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으로 건강식품을 손에 꼽았고 최근 들어서는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물, 약국, 병의원 할 것 없이 “건강식품” 열풍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 많은 업체가 난립을 하고 수입업자 또한 2005년 9월 말 현재 1,500여 곳에 이르는 수준에 와 있으며 품목 허가는 4,2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의사를 위시한 일반인들이 취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약사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교육을 면제해 주었다. 그러나 이렇게 유리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부분의 약사들은 기능식품에 거의 무관심하고 어느 면에서는 차라리 무지하다고 할 수도 있다. 현재 몇 품목이나 고시가 되어있는지, 개별인정형이란 무엇인지, 또한 그 각각의 정의와 기능 및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공급업자의 권유에 따라 ‘한 번 들여놓아 전시해 놓고 본다’ 라는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에서 의약품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고

자 할 때 그 제품에 대해 전력을 기울여도 소정의 기대치를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단지 진열만 하고 적당한 설명(가격이나 유통기한 정도)만 하면 판매가 잘 이루어져 약국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약국 현실이다.

방문판매나 다단계 판매 업자와 약사를 비교해 볼 때 약사들은 기능식품을 단지 약국에서의 부업 정도로만 여겨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마는’ 그러한 개념에 머물러 있지만 방문판매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는 판매 자체가 생명이고 목숨이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고객에 접근한다. 홈쇼핑 역시 다양한 광고 기법을 동원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사지 않으면 안된 계끔 유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들은 아직까지도 ‘의약품이라는 무기’가 있기에 상대적으로 여유로움을 느끼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다음은 금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많은 약국들이 기능식품을 취급함에 있어서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이 판매 인력의 부족이다. 즉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판매를 하고자 하면 기존의 약사 인력으로는는 조제 부분에 전념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우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판매의 증대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을 충원해야 하지만 막상 당장 눈에 보이는 인건비의 지출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조제 약국 위주에서 기능식품 등의 판매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약국의 리모델링과 제품의 구입 등 추가 자본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즉 처음 약국을 시작할 때 임대료 및 시설 등에

약국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적절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도록 권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고객이 항상 건강할 수 있고 더불어 그 가정이 건강할 수 있다면, 사회가 건강해 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가 부강해 지는 것이라는 자부심을 한껏 느낄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대한 초기 자본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약국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역시 새로운 투자가 불가결한 사항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기존의 인력과 진열장 및 조제약국의 형태로 단순히 일정 공간을 할애하여 단순 진열의 방법으로 추가적인 투자 없이 어떻게든지 매출을 신장시켜 보려 하지만 약국도 하나의 작은 사업체라고 생각 한다면 새로운 투자 없는 추가 소득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제품의 구매 수량도 고려해야 할 대상인데 많은 경우의 약국들이 관심 있는 제품을 단순 관심 내지는 시험 삼아 심지어는 한 두 개 정도만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마음가짐이나 접근 형태라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기능식품 등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판매 전략 등을 갖추어 온 정성을 다해 판매에 임해야만 한다. 몇 개 진열해보아서 팔리면 더 구입하고 아니면 그만둔다라는 소극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그만큼 발전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사업이라는 개념을 적극 도입해서 공격적인 경영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부지런함과 정성스러움이 또 하나의 필요한 덕목이다.

약국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정성스러움으로 대해야 하는데 특히 건강에 대한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현대인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건강 정보를 상당량 습득하지만 그 정보를 자신이나 가족에게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므로 그 역할을 약사가 대신 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약국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온 정성을 다해 다소 귀찮을 정도까지 상담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고객이 약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것이다.

약국에서의 고객 응대에 있어서 POP나 Brochure 등이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도구

들은 제약회사에서 제공한 것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자신의 약국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약사 스스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上記의 준비가 다 되었다면 다음은 오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약국에 인력을 확충하고 리모델링을 하며 새로운 제품(기능식품)을 구입하여 진열한다고 해서 한 두 달 내에 매출의 증가를 기대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갑자기 변화된 약국의 모습과 전에 없이 달리 대하는 약사들의 모습에서 고객들이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 약국의 변화를 시도하는 약국 중에서 많은 경우가 이 “기다림”을 참지 못해 포기하며 또 다시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 여러 곳(주로 강좌)을 전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치 봄에 씨앗을 뿌리면 여름 내내 땀을 흘려 가꾸어야 비로소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이고 친절함 상담과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하는 모습을 지역 주민에게 보여줄 때, 비록 느리지만 반드시 매출의 변화가 일어나는 약국의 모습을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만은 아닐 것이다.

끝으로 기능식품을 판매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금전적인 이익 뿐 아니라 한 가정의 건강을 지킴으로써 더불어 국가와 사회에 일조를 한다는 자긍심이 필요하다.

약국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적절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도록 권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고객이 항상 건강할 수 있고 더불어 그 가정이 건강할 수 있다면, 사회가 건강해 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가 부강해 지는 것이라는 자부심을 한껏 느낄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증가를 위해서는 약국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투자와 함께 넘치는 자신감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이다.

2005 중앙인의 밤



저물어가는 한해를 마무리하며 모교 발전을 위해 마련된 2005중앙인의 밤 행사가 이석희, 문병집(경제 4), 이중훈(경제 10), 박범훈(음악 24) 동문 등 전·현직 모교 총장, 김명섭(약학 12), 서청원(정의 18) 前 동창회장 등을 포함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5일 강남 센트럴시티 컨벤션센터 밀레니엄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개회사에서 유용태 동창회장은 “한 해 동안 모교는 병원신축과 취업률 1위와 같은 보람된 성과도 있었지만, 로스쿨 유치와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과 같은 당면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전 중앙인이 지혜와 인고로 모교를 지원해야 할 때”라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있는 중앙가족을 한데 모으는 글로벌 동창회 구축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범훈 총장은 “중앙인의 밤이 단순한 송년행사가 아니라 동문회 발전과 동문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모교를 향한 관심과 격려의 마음을 가지

고 모교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날 자랑스런 중앙인상은 ▲교육지도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진로지도 이론 정립, 그리고 타 대학 총장으로 모교의 명예를 높인 교육부문 홍기형(교육 13, 前 대진대학교 총장) ▲꿈임없는 신약개발 연구로 국가 의료발전에 기여한 경제부문 조의환(약학 15, (주)삼진제약 회장) ▲30여년간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통해 한국문단의 주목받는 시인으로 자리매김한 문화부문 노향림(영문 15, 시인) ▲경찰간부로 활동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행정사회부문 이기목(신방 23,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학시절 우수한 농구선수로 활약했으며 현재는 프로농구팀 감독으로 한국 농구발전에 기여한 체육부문 허재(체육교육 39, 농구 전주KCC이지스 감독) ▲20여년 가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펼쳐 ‘의와 참’의 정신을 빛낸 사회봉사부문 중앙대학교교직원보호회가 수상했으며, 이들에게는 공로패가 전달되었다.

단·생·산·사 (團生散死)



1. 뭉치면 서로, 나뉘면 헤어진다
2.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3. 뭉치면 견디고, 나뉘면 죽는다.
4. 한 손으로는 박수치기가 어렵다.
5.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6. 손뼉도 맞아야 소리가 난다.
7. 짚 없이는 벽돌을 만들 수 없다.
8. 개미가 절구통을 돌고 간다.
9. 개미떼가 용도 잡는다
10. 모기도 모이면 천둥소리난다
11. 티끌 모아 태산
12. 구두장이 셋이 모이면 제갈량보다 낫다
13. 개미 천 마리가 모이면 맷돌도 든다
14. 합한 두 사람은 흩어진 열 사람보다 낫다. - W.NL.영안
15. 도둑질도 손이 맞아야 한다.
16. 회초리 한 개는 꺾어도 회초리 열 개는 못 꺾는다

우리의 소원은 !!

김 기 명 (18회, 본지 편집위원)

중앙대학교내에 최근 완공된 GLP시스템을 갖춘 청정동물 연구센터

중앙대학교 분자조절신약개발연구소(소장 손의동)는 2005년 12월 7일(수) 약대 교수세미나실에서 '산학협력과 전임상실험을 통한 바이오 신약개발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제19회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움에서는 이상준박사(수도약품 대표이사)가 '거시적 Red-BT TRM 작성과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여 신약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바이오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로 최용석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는 protein kinase C에 대한 조정도메인을 타겟한 염증신호억제물질개발전략, 김재일교수(광주과학기술원)가 toxin에 대한 이온채널의 voltage sensing domain에 대한 Gating을 조절하는 상호작용연구, 김하형교수(중앙대학교 약학대학)가 sialic acid-binding protein에 대한 신약개발응용을 발표하여, 연구실에서 얻어진 실험결과들이 산학협력을 통한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005년 10월 24일 "건설교통부장관상 수상"



안희규 (28회)부회장

시스템철골계단인 "페로스테어"를 개발하여 2004년도 4월에 건설교통부 신기술 지정을 받고, 열심히 땀 덕분에 짧은 기간에 100여 현장에 적용 및 예정으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행사

▶6월 16일 병원약사위원회 모임 7시



▶6월 18일 15회 동기회 모임 6시



▶6월 19일 관악지부 모임 9시



▶6월 21일 김미자(11회) 이사 서예전시회



▶6월 29일 회장단회의 6시



▶7월 14일 여동문회의 12시



▶7월 2일 7회 동기회 모임 6시



▶7월 16일, 17일 임원워크샵

▶7월 23일 초도이사회 6시

▶8월 22일 모교교수간담회 7시

▶9월 3일 여동문회의

▶9월 7일 시도지부장회의 7시

▶9월 9일 회장단회의 6시

▶7월 2일 인천지부 모임 8시



▶7월 7일 고문, 자문위원, 감사회의 5시



▶9월 14일 장학기금위원회의 5시



▶9월 22일 은평지부 모임 9시



▶9월 23일 장학금 수여식 4시



▶10월 3일 강남지부 모임 12시



▶10월 5일 성동·광진지부 모임 9시



▶10월 21일 성북구지부 모임 8시



▶10월 25일 2005년도 서울시 시민상 문화부문 시상식
(생명과학분야 김창중(11회)교수)



▶11월 9일 3회 동기회 모임 12시



▶11월 12일 19회 졸업 30주년 기념 6시
• 신임동기회장 윤건섭

▶11월 24일 제4차 회장단회의 6시



▶12월 10일 동작지부 모임 6시
신임지부장 엄계숙(13회)



▶12월 12일 교수송년회 6시



▶12월 15일 시흥시지부 모임 10시 (사진)
• 신임지부장 강성원(18회)



▶12월 15일 강동지부 모임 9시

▶12월 16일 강서지부 모임 8시



▶12월 23일 성남시지부 모임 9시



결혼

- 7월 3일 박장우(9회) 동문 자녀결혼
- 7월 10일 선우영환(17회) 부회장 자녀결혼
- 10월 3일 방순환(10회) 동문 자녀결혼
- 10월 15일 임철부(6회) 교수 자녀결혼
- 10월 23일 원은한(12회) 동문 자녀결혼
- 10월 29일 정진호(22회), 강명희(22회) 동문 자녀결혼
- 11월 13일 박승보(11회) 동문 자녀결혼
- 11월 13일 박속자(7회) 이사 자녀결혼
- 12월 3일 노인배(3회) 이사 자녀결혼
- 12월 4일 민대식(11회) 동문 자녀결혼
- 12월 10일 박영찬(12회) 이사 자녀결혼
- 12월 17일 김기홍(1회) 고문 자녀결혼
- 12월 17일 정상모(9회) 동문 자녀결혼

부음

- 6월 25일 조중행(5회) 동문 별세
- 6월 25일 한석원(8회) 이사 모친상
- 7월 27일 박용숙(7회) 동문 별세
- 7월 27일 주진국(11회) 동문 별세
- 8월 4일 김영미 동문 부친상
- 8월 11일 조의환(8회) 이사 빙모상
- 8월 23일 황공용(11회) 부회장 빙모상
- 9월 2일 장영조(10회) 이사 모친상
- 9월 2일 유신웅 동문 모친상
- 9월 14일 한성엽 동문 빙모상
- 9월 27일 이호선(20회) 부회장 모친상
- 10월 7일 김성만(21회) 동문 모친상
- 10월 8일 천진호 동문 모친상
- 10월 18일 오영지(13회) 이사 모친상
- 10월 26일 이정구 동문 부친상
- 11월 11일 김상좌 동문 빙부상
- 11월 13일 이승주 동문 모친상
- 11월 7일 이승규(9회) 동문 별세
- 11월 30일 고재호 동문 빙모상

부음시 동문회로 연락주시면 근조기를 설치해 드립니다.



발전기금 조성 내역(기수별)

총 22억 8백 1십만원 (2005년 12월 29일 현재)

교 수 총 16,800 만원

- <교내> 이민원(1,000), 최영욱(1,000), 임철부(1,000)
 염정록(700), 김창중(500), 김미영(500)
 이도익(500), 임채욱(500), 김대경(500)
 황완균(500), 김하형(500), 김홍진(500)
 심상수(500), 손의동(700), 천영진(500)
 김종갑(500), 손동현(500), 이광표(500)
 홍순각(500), 김기호(500), 허인회(500)
 황광우(500), 한상범(500), 이재휘(500)
 최형균(500), 조사연(500)
- <타교> 오유진(300), 한성순(100), 주왕기(300)
 염윤기(300), 석대은(300), 권광일(300)
 임세진(300)

학 생 총 5,350 만원

동문회장단 총 30,500 만원

- 권혁구(1,000), 임상묵(1,000), 유영후(1,000) 조의환(11,000), 안병식(1,000), 박종화(1,000) 정재일(500), 이기안(500), 박숙자(500) 김연희(500), 이규진(500), 박호일(500) 유정사(500), 정덕호(500), 황공용(500) 황문상(500), 강옥희(500), 서국진(500) 윤대봉(500), 박석동(500), 정명진(500) 김경오(500), 이규식(500), 김현태(500) 김종열(500), 김승재(500), 김중성(400) 김승태(400), 정찬현(400), 김수배(300) 이호섭(300), 박계환(300), 이경옥(300) 김영식(300), 허근희(300), 박찬희(300) 노덕재(300), 조기현(300), 양희익(300) 이내홍(300)

단체기부 총 5,950 만원

- 중삼친목회(300) • 미주(L.A.) 3회 동기회(50)
- 91학번 친목회(이윤준외, 300) • 미생실험반 동문회(300)
- 7회 동기회(500) • 7회 약우회(박숙자와의 11명)(500)
- 64예중회 회원일동(100) • 약대기금(3,200)
- 기업체후원(700)

학부모 및 기타 총 400 만원

- 한충강('02 한인민 학부모, 300)
- 송병준(10/9 심포지엄 연사, 100)

개인·부부동문 총 161,810 만원

기수별 통계 (단위 : 만원)

- (1회) 손동현(500), 오유진(300), 이광표(500), 홍홍만(300)
 (2회) 고두흔(박명자 부부, 700), 서화택(500) 홍순각(500), 황인규(300), 황재수(100)한성순(100)
 (3회) 김석자(300), 김용욱(50,000), 조영만(이정자 부부, 50), 한만우(1,000)
 (4회) 김기호(500), 김현용(300), 박노일(300), 이연수(300), 천홍기(300), 허인회(500)
 (5회) 박명자(고두흔 부부, 700), 이송학(300) 이해석·강태일 부부(1,000)
 (6회) 김경희(300), 김동열(300), 김중구(300) 박정배(300), 신정숙(300), 안병한(300) 유상열(300), 이준장(100), 임철부(1,000), 추의호(300), 홍병석(300)
 (7회) 강승안(500), 김영일(300), 김옥남(500), 김정부(300), 김정웅(300), 김정재(300), 박명신(300), 박숙자(500), 박옥규(300), 유영후(1,000), 유윤자(300), 이기환(1,150) 이기안(노신희 부부, 500), 이능세(300), 이양현(500), 이준종(60), 인고길(300), 임종홍(300), 이정자(조영만 부부, 50), 정재일(500), 차승현(300), 한철희(300)
 (8회) 김연희(500), 김형이(500), 문옥자(300) 박성애(300), 박찬수(300), 배영애(100) 신현우(100), 윤주섭(300), 이백천(1,500) 이조열(300), 임상묵(1,000), 장영자(300), 정재용(300), 주왕기·김희자 부부(300)조의환(11,000) 최병준(200), 한석원(500) 허근희(300), 김홍자(300)
 (9회) 권혁구(1,000), 김영부(500), 상병준(300), 서황석(500), 이규진(500), 이근배(100), 노신희(이기안 부부, 500)
 (10회) 김삼균(300), 박호일(500), 방순환(12,000), 서정목(300), 유정사(500), 이대운(300), 이양원(300), 장영조(300), 정승수(300), 정수길(300), 정영기(300), 조규동(300)
 (11회) 김승업(300), 김정길(100), 김창중(500), 민대식(300), 박상희(300), 박찬희(300), 이철규(50), 정덕호(500), 최옥출(100), 황공용(500), 황문상(500), 홍금자(남기탁 부부, 500)
 (12회) 강옥희(500), 김 구(500), 김초성(100), 남기탁(홍금자 부부, 500), 노덕재(300), 박영찬(1,000), 민명임(100), 우홍길(300), 염윤기(300), 이성우(500), 이정희(300),

- 이호섭(300), 최병호(300), 64여중회 회원일동(100)
- 〈13회〉 김신미(10), 김종성(400), 박동규(300), 문재빈·김애련 부부(500), 서국진(500), 안병식(1,000), 윤창현(300), 조중목(300), 이종각(박종애 부부, 500), 조성복(홍순경 부부, 500)
- 〈14회〉 김명용(1,000), 김원순(300), 김종열(500), 윤대봉(500), 이규식(500), 정도연(1,000), 정진모(300)
- 〈15회〉 김승태(400), 김용의(300), 박석동(500), 석대은(300), 안민철(300), 이인석(300), 조찬휘(300)
- 〈16회〉 강명채(500), 김광식(300), 김선기(300), 김성광(100), 박종애(이종각 부부, 500), 이상규(300), 윤영로(200), 조기현(300), 한인희(300), 홍순경(조성복 부부, 500) 최광식(전순희 부부, 500)
- 〈17회〉 김인형(500), 선우영환(방금숙 부부, 500), 김대희(400), 신상직(500), 양희익(300), 유종관(300), 장재인(300), 전상훈(300), 정갑진(300), 주완표(300), 최해광(300)
- 〈18회〉 강응모(성낙순 부부, 500), 김기명(300), 김창길(300), 박계환(300), 정명진(500), 조중형(300)
- 〈19회〉 권광일(300), 권영훈(300), 권창호(400), 김경오(500), 김동희(300), 박호식(300), 옥태석(300), 이경옥(300), 이창욱(300), 최종숙(300)
- 〈20회〉 강혜옥(300), 김영섭(300), 김종갑(300), 김현태(500), 박기배(300), 송열호(300), 방금순(선우영환 부부, 500) 송창수(300), 오상동(300), 유영내(300), 윤춘수(300), 이신규(300), 이극선(300), 이상일(500), 임구래(300), 정영수(300), 임경원(이현숙 부부, 1,000), 정찬현(400), 지태현(300), 차재근(300), 최운환(300)
- 〈21회〉 강성무(300), 김대일(300), 김병무(300), 김수배(300), 박전희(100), 백운경(50), 어경남(300), 이규섭(300), 이세진(500), 전명선·김민숙 부부(300)
- 〈22회〉 강희운(300), 김철수(300), 김홍진(500), 박동우(300), 손의동(700), 오형영(400), 유대식(300), 이상돈(100), 이정석(300), 장운용(300), 전일오(300), 최광훈(300), 정진호·강명희 부부(500)
- 〈23회〉 강호영(100), 공인호(300), 권석형(500), 김수종(300), 김영식(300), 김항만(300), 박종화(1,000), 박희용(100), 양재업(300), 이도익(500), 이승해(300), 이원길(300), 이정대(100), 임상규(300), 임준석(300), 정덕기(300), 정원국(300)
- 〈24회〉 김관식(500), 김상현(300), 오동근(300), 윤규형(500), 김승재(김희식 부부, 500), 윤원철(300), 이광섭(300), 이규삼(100), 이범도(300), 이영주(300), 임무호(500), 정상수(300), 조중래(500), 최영욱(1,000), 함삼균(50), 최재윤(김윤경 부부, 500), 함한성(300), 홍용기(300), 황규진(300)

- 〈25회〉 고성권(300), 김영식(300), 김춘규(100), 김희섭(300), 성낙순(강응모 부부, 500), 손현우(300), 위성건(500), 이내홍(300), 이민원(1,000), 이재희(김은진 부부, 500), 이현수(300), 조순현(300), 최두주(300), 조석현(임흥옥 부부, 500)
- 〈26회〉 김안식(300), 김영후(300), 라종우(300), 문형철(300), 박재길·오옥희 부부(500), 백낙기(300), 선우일원(300), 심상수(500), 이영준(300), 이종량(300), 정태형(300), 이창훈(이숙희 부부, 500), 진희익(300), 최민규(300), 황완균(500)
- 〈27회〉 안산 79학번 동기회(김덕진, 오순용, 오흥설, 이상필, 이창오, 이현수, 한봉길 각각 300씩 총 2,100), 광순자(150), 김정호(300), 남상진(300), 박수길·이정아 부부(500), 박영달(300), 방만성(조순연 부부, 500), 변영신(300), 안희영(300), 양건모(300), 유기조(300), 오영돈(300), 이선애(100), 최기선(300), 현기원(300)
- 〈28회〉 김광선(300), 김미경(300), 김영희(300), 김윤경(최재윤 부부, 500), 김유곤(500), 김희식(김승재 부부, 500), 박용석(100), 박우종(300), 안희규(300), 양덕숙(300), 이병천(300), 이용해(300), 이숙희(이창훈 부부, 500), 이해룡(300), 임세진(300), 임채욱(500), 장원규(300), 전금용(300), 조상오(300), 조호금(300)
- 〈29회〉 강대용(300), 강철선(300), 김영자(300), 김은진(이재희 부부, 500), 서경원(300), 손병로(300), 안성진(300), 유종운(300), 유인석(300), 이종민(300), 이준(300), 이철(300), 장우성(300), 정진호(300)
- 〈30회〉 김광식·윤기숙 부부(500), 김미영(300), 박복자(300), 서봉호(100), 신일균(300), 이인자(300), 장부자(300), 조덕희(300), 조순연(방만성 부부, 500), 천세영(300), 최병원(300), 황유세(300)
- 〈31회〉 김진홍(300), 김하형(500), 박건규(50), 변동성(300), 이현숙(임경원 부부, 1,000)
- 〈32회〉 고은미(300), 박은미(300), 조양연(300), 채영주(400)
- 〈33회〉 박재훈(240), 임희원(300), 이재희(500)
- 〈34회〉 민성철(300), 배규환(300), 이선우(300)
- 〈35회〉 광정근(300), 권준한(300), 황광우(500)
- 〈36회〉 방극상(50), 안영운(300), 우경아(300), 임성호(300)
- 〈37회〉 오상희(100), 정병욱(300)
- 〈38회〉 박용석(300)
- 〈39회〉 박종호(300)
- 〈40회〉 한국약품(이병두, 300)
- 〈41회〉 구영준(300)
- 〈43회〉 강규태(100), 김종호(100), 신명숙(300)
- 〈44회〉 문상희(100)



동문회비 및 기금 납부자

(2005년 5월 25일 ~ 2006년 1월 7일)

회장단 회비(연24만원)

- ▷ 9회 : 권혁구, 이근배, 박성학, 최인자, 황태선
- ▷ 10회 : 박호일, 유정사,
- ▷ 11회 : 황공웅
- ▷ 12회 : 김 구, 심재웅, 이성우
- ▷ 13회 : 문재빈, 박동규, 서국진
- ▷ 14회 : 김종렬, 조길도
- ▷ 15회 : 임영식, 조찬희
- ▷ 16회 : 허사길
- ▷ 17회 : 신상직, 장재인, 선우영환
- ▷ 18회 : 강응모, 정명진, 조중형
- ▷ 19회 : 김경오, 이경옥, 윤건섭
- ▷ 20회 : 김현태, 박기배, 이호선, 정찬현
- ▷ 21회 : 이세진, 홍종오
- ▷ 22회 : 강희운, 김형근, 유대식
- ▷ 23회 : 김영식, 박종화, 강한구, 임준석, 정덕기
- ▷ 24회 : 김승재, 이규삼
- ▷ 25회 : 최두주
- ▷ 26회 : 진희억
- ▷ 27회 : 최면용
- ▷ 28회 : 안희규, 양덕숙
- ▷ 30회 : 김광식

이사회비(연12만원)

- ▷1회 : 손동헌
- ▷2회 : 서화택
- ▷3회 : 박종순
- ▷4회 : 천홍기
- ▷5회 : 윤원영, 김채운
- ▷6회 : 김경희, 홍병석, 안인혁, 유상열
- ▷7회 : 김영덕, 유영후, 서명규
- ▷8회 : 조의환, 임상목
- ▷9회 : 양무웅, 최영근, 박장우, 김의섭, 임승진, 손승언, 윤광로, 김영빈, 정상모
- ▷10회 : 이영민, 이대운
- ▷11회 : 김미자, 민대식, 박승보
- ▷12회 : 김홍자, 강옥희, 이관하, 원은한
- ▷13회 : 안병식, 최창엽
- ▷14회 : 김명웅
- ▷15회 : 이명숙, 박원봉,
- ▷16회 : 강명채, 이은솔, 송용만
- ▷17회 : 김재천
- ▷18회 : 김애경
- ▷20회 : 이신규, 이극선
- ▷21회 : 백기홍
- ▷24회 : 이광섭, 장규옥
- ▷27회 : 박영달, 현기원
- ▷28회 : 정현숙
- ▷30회 : 최병원

회장단 특별회비



서국진(13회)
신상직(17회)
강응모(18회)
임준석(23회)



권혁구(9회)
유정사(10회)
박호일(10회)
허사길(16회)
선우영환(17회)
조중형(18회)
박기배(20회)
유대식(22회)



이근배(9회)
조찬희(15회)
정명진(18회)
정찬현(20회)

일반회비(연2만원)

- 1회 : 이한두, 안영희, 채희태, 노성현
- 2회 : 김양원, 김길수, 한성순, 선관수, 이옥근
- 4회 : 최진희, 최중화, 김명수, 김희관, 이경석, 임호근, 이영아
- 5회 : 김중무, 김을경, 임맹순, 강희복, 조복희, 강태일, 오상오
- 6회 : 이풍기, 추의호, 신의명, 홍성호, 홍헌표, 유복상, 이성호, 장천식, 홍성호, 김영재
- 7회 : 김정웅, 윤태정, 유효희, 정연홍, 박래식, 박승면, 마선희, 김병익, 김경동, 박승기, 이상현, 김영환, 이명원, 손종화
- 8회 : 임진택, 임갑환, 박종원, 안승간, 조수현, 김일래, 이창복, 유재우, 이성규, 김수웅, 김희선, 엄순자, 임성빈, 안덕기, 이영복, 이조열, 김기중, 정재영, 김재학, 김옥렬, 최승치, 김영배, 방혜숙, 이영우, 이복숙, 주학철, 김항석, 엄규중, 오정웅
- 9회 : 방승우, 김광자, 이규형, 권오성, 이수자, 박정자, 김학진, 윤경자, 김명자, 김명자, 이경주, 김수홍, 김동수, 신우식, 최보혜, 박종환, 조경자
- 10회 : 조정자, 하광호
- 11회 : 이범진, 이석태, 신명승, 구자역, 송병기, 박승보, 강일성, 이석태, 이남진, 박상희
- 12회 : 홍정덕, 우호길, 이광호, 윤석봉, 오수치, 민병민, 염윤기, 장석훈, 송춘식, 옥정남, 임순성, 이병재, 이원주, 문혜성, 김광옥, 김대건, 김 구, 최병호

장학금 수여식

모교 교수 세미나실

- 13회 : 김태중, 박인재, 윤해선, 김창식, 유용상, 손찬규, 구연홍
- 14회 : 현수홍, 이병조, 현해경, 이용성, 이희영, 김원순, 김진행, 변상훈, 김경수, 서정애, 박찬임, 양인승, 이영순
- 15회 : 정육주, 이덕노, 이원구, 변동성
- 16회 : 박상환, 박종애, 엄건희, 신규언, 백승복, 이정호
- 17회 : 박재식, 정갑진, 류종관, 안병조, 김강현, 양희익
- 18회 : 전춘이, 이영우, 고혜옥, 최정순
- 19회 : 최철희, 배영덕, 남운수, 장명섭, 김종달, 송택용, 이희정, 이정재
- 20회 : 유화승, 정금순, 홍철수, 서기수, 이재형, 서종원, 김길주, 안연순, 박문수,
- 21회 : 어경남, 박우중, 이만형, 조홍윤, 우건상, 정옥희, 신길득, 강성모
- 22회 : 이명수, 전일수, 윤영숙, 심재호, 한상훈, 임재영, 김철수, 정한용
- 23회 : 안봉국, 조종호, 유진경, 조병훈, 박상진, 김항만
- 24회 : 강창주, 임무호, 홍용기, 황규진, 박은원, 김정무, 윤원철
- 25회 : 김춘규, 이영금, 서형석, 손현우
- 26회 : 김광옥, 손영상, 박주돈, 김재역, 이영준, 조병일, 윤용혁, 정기춘, 이순아, 선우일원, 이영준
- 27회 : 방만성, 양건모, 박상규, 곽순자
- 28회 : 조상오, 구영삼
- 29회 : 한인규, 장우성, 강철선, 이종민, 김미숙, 한일웅
- 30회 : 조순연, 김용규, 고은숙, 조덕희, 이정숙, 곽필신, 오영자, 김향숙, 강성철
- 31회 : 황연희, 유수미, 유지영, 구상미, 유문숙, 김혜림, 전미지
- 32회 : 조양연, 박래경, 이경우, 김정희
- 33회 : 백재웅, 소정우, 최현정
- 34회 : 김종국, 강선희, 윤덕수, 배규환, 김화기
- 35회 : 오창현, 이기훈, 곽정근, 김진
- 36회 : 김현이, 홍종례, 홍성원, 방극상, 서유정, 임기민, 우경아
- 37회 : 정병욱
- 38회 : 곽분임
- 39회 : 임재용, 전병선
- 40회 : 김우승, 최정희, 이철한
- 41회 : 박종일, 이미경, 구영준, 오종현
- 42회 : 이창경, 최장순, 최명수
- 43회 : 강규태
- 44회 : 유경미
- 45회 : 문상희
- 47회 : 김병수, 박정실, 박준영, 손진혁
- 48회 : 최지혜
- 49회 : 기영은, 박재혁, 김원호, 박일상
- 기수모름 : 권태수, 이영은, 김창수, 최병준, 윤응로, 문병수, 강성례, 하성주



약학대학 동문회 장학금 수혜자

장학금명	장학금액	학년	수혜자명	평점	
본 동 문 회 (7,000,000)	700,000	약학2	염 해 선	4.07	
	700,000	제약2	도 주 연	4.07	
	700,000	제약2	이 해 리	4.04	
	700,000	약학3	이 민 영	3.95	
	700,000	약학3	박 상 필	3.92	
	700,000	제약3	장 현 수	3.86	
	700,000	제약3	송 호 선	3.78	
	700,000	약학4	전 영 훈	3.79	
	700,000	제약4	이 정 민	3.83	
	700,000	제약4	남 윤 성	3.70	
	부 산 동 문 회 (500,000)	500,000	약학2	최 원 주	4.00
	안 산 동 문 회 (500,000)	500,000	약학부1	변 경 환	3.68
여 자 동 문 회 (1,000,000)	500,000	약학부1	최 진 하	3.72	
	500,000	제약4	신에나래	3.76	
ROTC동문회 (500,000)	500,000	약학3	김 인 철	3.82	
약제반동문회 (1,000,000)	1,000,000	제약3	김 보 건	3.33	
약수회동문회 (1,800,000)	1,800,000	약학2	이 은 창	3.65	

한미약품(주) (3,559,000)	약학대학 발전연구 지원금			
합 계 : 15,859,000				

회비납입방법

- 은행지로 : 7613953
- 조흥은행 : 994-04-008036
- 중앙대학대동문회
- 입금후 전화연락바랍니다.

연간회비

- 회 장 단 : 240,000원
- 이 사 : 120,000원
- 일반회원 : 20,000원

2006년 丙戌年의 아침이 밝았다.
 병술년은 개의 해로 유사이래 개 만큼 인간과 친밀한 동물도 드물다.
 개는 "사흘만 기르면 주인을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주인에 대한 충복심이 강하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기적인 세대에 약삭빠르게 처세하는 인간 중에 "개만도 못한 " 사람들이 지탄을 받기도 한다.
 개는 또한 협동심도 강하다.
 야생의 들개는 무리들이 협동하여 큰 동물을 사냥하며 위계질서를 지키며 새끼들을 양육한다.
 2006년 한해는 우리중앙인들이 개처럼 서로 협력하며 선·후배간의 위계질서를 지키되 서로 서로 이해와 관용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따뜻하게 비취는 한낮의 태양이 되었으면 한다.

황 공 용 (11회, 부회장/편집위원장)

明

우편 배달부는 뽕을 두번 올린다!
 소한 추위가 극성이다. 경기 마저 공 공 얼어 붙었다. 매서운 바람에 빨갈게 부은 얼굴의 우체부가 들어왔다. 세금 계산서, 제약사의 의약품 소개서, 금산 고려인삼의 소핑물 안내서, 구청 건축과의 건축허가 취소장, 골프 회원권 거래소의 안내문, 약사공론...을 전해주는 그에게 한사코 마다하는 데도 따근한 쌍화탕을 권했다.
 예전에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우체부 아저씨에게 더운 여름날 얼굴을 동동 띄운 화채며 감주를 대접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하였더니요사이는 거의 과태료 고지서, 벌과금, 고소장, 내용 증명, 세금, 딱지...들이고 보니 아무런 죄없는 자기한테 욕하고, 화를 내고, 시비를 거니 곤혹스러운 때가 많다고 한다.

우리 동문회보는 매년 5월 에서부터 익년 5월 까지 동문회원들의 정성어린 회비에서 운영 되고 있다.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여 하는데 우리의 정성이 모아지고 그 정성이 한데보여 단결 할때 진정으로 명문 사학! 중대 약대의 위대한 승리를 외칠수 있을 것이다.
 동문회보를 전하는 우체부의 손을 반갑게 잡아줄수 있는 그날을 위해 !....

昏

우리는 매일86,400초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인 것 같지만 어떤 이는 단 몇 초 상관으로 운명을 달리하곤 합니다.
 한번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시간입니다.
 새해에는 정말 시간을 귀하게 사용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동문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들을 모아서 2006년도 새해에 또 한권의 회보를 출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를

洗

국민 생활의 질(質)이 향상(向上)되고 각종 과학(科學)과 의학(醫學)이 발달(發達)된 덕분에,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平均 壽命)이 우리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보다는 훨씬 길어져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 10년 또는 20년 정도 조상(祖上)님들 보다 더 많아진 것으로 안다.
 게다가, 각종(各種) 산업의 발달로 우리는 더욱 아름답고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한데도 오늘날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여유를 즐기며 느긋하게 기다린다는 모습보다는 참성성 없이 서두르고 빨리빨리 해치우려는 조급함이 몸에 배어 나타나는 것 같다.
 오늘날의 이 찬란한 문명을 이룩하기 까지 많은 세월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그 삶의 여유가 어디로인지 실종(失蹤)된 느낌이다.

〈편집위원장〉 황공용(11회) 〈편집위원〉 김종렬(14회), 김경오(19회), 박희용(23회), 김정수(26), 이준(29회)

동문여러분의 육고를 모집합니다

동문회 및 회원들의 활동과 관계된 것이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내용이나 환영합니다.
 가급적 관계되는 사진을 첨부하시면 더욱 알찬 구성이 될것입니다.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접수〉 동문회보 편집실

전화:(02)565-1700

팩스:(02)564-1701

E-mail:capa21@hananet.net

Shortcut to Antibiotic therapy

AMOCLA

아모크라[®] 주
정/시럽
듀오시럽·정

(아목시실린·히석클라불란산칼륨)
내성균에 유효한 광범위 항생제

아모크라는 β -lactamase 생성균에 의한 감염증 치료에 빠른길입니다.

원료 및 기술제휴
lek d.d. ljubljana

제조판매원
건일제약(주)
KUHNIL www.kuhnil.com

우리부부 행복찾기



박준·임승애부부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30대로 보인다고요?
로맨틱 컬러를 지켜주는
7,8분 빠른 염색약 - 세븐에이트,
부드러운 머릿결 - 헤미닌 실키 덕분에죠!
우리 부부는 행복찾기 염색전문가랍니다.

특허출원제품
실크 단백질 함유

부드러운 머릿결 **헤미닌 실키**
한국의 염색약 **세븐에이트**





감기, 한번에 확~ 화이트벤으로 잡으세요
 목감기! 코감기! 몸살감기!
 온몸으로 요리조리 지긋지긋한 요즘 감기,
 이제 한번에 확! 화이트벤!
 우향, 길경, 감초의 생약성분에 비타민 C 보강으로
 화이트벤이 더 새로워졌습니다!

화이트벤®

효능·효과 감기증상(코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기침, 가래,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의 완화

소비자 문의전화 : 02-2050-5674 / 080-469-5910



감기하면

화이트벤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 (02) 565-1700 팩스: (02) 564-1701

E-mail: capa21@hananet.net